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

趙仁淑 (Cho, In-Souk)
建築士/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I. 머리말

박물관·미술관¹⁾은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과학박물관 등 기능이 점점 세분화되어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특성화가 요구되며 다양한 문화유산은 박물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제(諸)종교 및 종교관련유산도 마찬가지로 수집·조사·전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을 보존(保存)²⁾하려는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제 종교는 종교관련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혹은 기존시설의 개선 및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은 유교(儒敎)라는 이념까지 포함하여 불교·천주교·기독교·무속(巫俗) 등 다양한 종교가 저마다 찬란했던 과거의 유산들을 안고 나뉘어 공존하고 있다.

종교박물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종교박물관의 건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박물관건축에 대한 연구의 성과물들을 돌아보고,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

1. 종교박물관

1) 다양한 특성을 살린 종교박물관의 역할에 걸맞는 종교박물관 건축이란 과연 무엇인가?

종교박물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각각의 종교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연구활동·사회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거나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매체로서의 역할, 곧

-
1. ICOM Definition of a Museum: "A museum is a non-profit making,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of its development, and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for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njoyment, material evidence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 (ICOM Statutes art.2, para.1)
 2. 한국에서 종교분야에서의 박물관 건립은 도난에 대비한 유물 보호차원에서 단순 보관(保管)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과학적 기술을 동원한 수리(修理) 등을 통한 보존(保存)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Religious Museum 또는 Museum of religious life & art 등에 해당하며, 유물관·역사 자료관·전시관·성인(聖人)이나 순교자의 기념관 등으로 문화유산의 관람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성지순례의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제(諸) 종교 그 자체가 수집대상이며 전시 및 관람의 대상이자 연구대상으로 Museum of Religion 또는 Religion Museum에 해당한다. 후자는 여러 종교들을 백화점식으로 한 곳에 모아 다양하게 종교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의 대상은 제 종교의 박물관건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잠정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종교 종합박물관의 건립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제 종교의 박물관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사례

○ 기독교 박물관은 기독교 전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건축자체도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며 독자적인 박물관보다는 대학이나 교회의 부설박물관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학박물관·교회박물관·사립 박물관 등으로 경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종류에 따라 순교기념 박물관·성서 박물관·기독교역사 박물관 등이 있다. 앞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운동이 활발해지면 상당수의 기독교건축이 등록문화재로서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년 동안 지어진 기독교 박물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절두산순교박물관

순교로 지킨 한국 천주교 2백년 역사를 만나는 장(場), 절두산 순교 기념관은 병인(1866년) 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 3월에 착공하여 1967년 10월 낙성되었다. 기념관은 건물 3층(총 325평)과 종탑(35평), 성당(99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은 산의 모양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모하여 이희태(李喜泰,)씨의 설계가 채택되었다. 이 건축설계는 순교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적인 토착성과 전통미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기념관 2, 3층은 교회사 관련 유물과 문헌자료를 비롯한 민속품들이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념 성당지하에는 성인 28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어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화 과정을 보고 느끼기 위해 외국의 많은 관람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순교자 기념관”

한국 개신교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1989년 11월 건립하였고 개신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2001년 11월 개관하여 전시실과 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학술세미나·주제별 자료전시·자료 보급과 교환·교회사 강좌·유적지 발굴 및 답사 등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
국내의 유일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관계되는 각종 도서·신문·잡지·문서·엽서·사진 등을 10만여 점 소장하고 있다.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서울 구로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교육관에 설치된 "성서유물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문명의 진귀한 유물 2,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연면적 420㎡의 규모이며 1998년 11월 개관하였다.

이곳의 진품 유물들은 기원전2000년경의 수메르 토판문서에서부터 미케네와 블레셋족의 토기류, 기원전 10세기의 이집트의 미이라, 로마시대의 장신구, 고대 이스라엘의 무기류와 비잔틴제국의 금화에 이르기까지 3,000여년에 걸친 문명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유물들은 저명한 미국의 고고학자 케네스 바인(79, 전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대 총장)박사가 평생동안 발굴, 수집해 이 교회 박 아브라함 (72)목사에게 기증한 유물들이다.

○ 사실 한국의 불교(佛敎)는 산재되어 있는 사찰이나 사지(寺址)·탑파(塔婆) 등의 유적 그 자체가 이미 박물관이다. 불교는 전래 된지가 오래되었고 국교로서 정치이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된 유물들이 많고 건축물 자체가 국가문화유산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불교의 성보박물관은 현재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대개는 사찰소유의 불교문화재의 도난을 대비하여 보호차원에서 건립되었거나 건립계획중이다. 사찰 자체가 목조로 된 문화재인 경우가 많아 기존의 사찰 경내에 신축을 할 경우 때로는 건축의 형태가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또는 현대화한다는 명목아래 사찰의 경관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숫자는 많지만 몇 가지 불교 박물관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 박물관은 5,000여 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총 1,300여 평의 규모이다. 상설전시실 2개, 기획전시실 2개, 노천유물관, 학예연구실, 그리고 4개의 유물수장고와 자료실, 보존관리실, 150석의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규모는 600여점이다.

첨단시설을 갖춘 유물수장고의 확보는 그 동안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장 유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문화재들의 위탁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존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높이 12m 이상되는 대형패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가 중앙 홀에 마련되어 전국 각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패불이 정기적으로 교환 전시되고 있다.

직지정보박물관

1995년에 문을 연 직지정보박물관은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인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등지의 여러 절에 전해오는 불교문화재를 보존, 전시, 연구하는 불교전문 박물관이다. 1600 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대원사 티벳박물관

티벳의 정신 문화와 예술 세계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와 영적인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 보성의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대원사 주차장 위의 터를 닦아 티벳 사원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옥상 휴게실 등 총 건평 300평이다.

박물관에는 600점이 넘는 티벳 미술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기타 우리나라 전통목공예와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중요 무형 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 선생이 세운 경기도 여주의 목아불교박물관도 좋은 예이다.

2. 박물관 건축

1) 박물관 건축의 정체성-박물관이란 어떤 건축이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박물관건축은 그 자체가 박물관 안에 진열되고 수장되는 유물만큼이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박물관의 상징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 되어야 한다³⁾고 할 정도로 건축자체도 의미가 있다.

박물관 건축은 오래 전부터 많은 건축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다.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박물관 설계를 꿈꾸기 마련이며 관련분야 연구자라면 한 번쯤 박물관의 전시 및 관람공간이나 수장 또는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 왜냐하면 박물관 건물이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박물관이건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공공 문화시설이므로 건축가나 연구자들에게 박물관건축의 설계나 관련연구는 정신적인 부가가치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도 설계과제로 한 번씩은 다루어 보는 것이 박물관 설계이다.

사실 한국에서의 박물관 건축의 역사는 짧다. 국립부여박물관(구관, 1971년)·국립민속박물관(1972년)·국립경주박물관(1975년) 등의 예에서 보듯이 지을 때마다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앞으로의 박물관 건축은 박물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3. 백승길, 「한국박물관건축학회의 발족을 축하하며」, 『21C 한국박물관의 비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1997

한국에서는 근대 이후 박물관 건축에 대해 역사적 변천·공간구성·전시설계⁴⁾ 등에서부터 보안과 재난방지시스템 및 관리대책⁵⁾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여러 종류의 박물관 건물이 지어져 운영되어 왔다. 초기 보존지향의 목적에서 공개지향의 시기를 거쳐 참가체험지향 세대까지의 한국 현대박물관·미술관 건축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연구가 잘 되어 있다.⁶⁾ 그동안의 박물관 건립 및 관리·운영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미래박물관의 바람직한 설립방향⁷⁾이나 박물관 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연구⁸⁾ 등도 이미 다 연구된 바이다. 더욱 박물관 건축학회의 설립(1997년)이후 이들 연구의 결과나 설계안(案)들이 집대성되어 논문집⁹⁾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어떤 건축이어야 한다’는 것이 글이나 말로는 설명이 되어도 건축으로 구현하거나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이나 관리·운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항들이 내·외부 건축조형으로써 표출되기 어렵고 설계단계에서는 검증이 안되기 때문이다.

박물관 운영에 경험이 많으신 어떤 분이 “소장품의 특성화에 입각한 전시계획을 해결할 건축가의 선정”이 21C 박물관의 바람직한 설립방향의 하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건축가는 모름지기 자기의 건축타입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전시를 위시한 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축설계에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¹⁰⁾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점은 박물관을 설계할 건축가 선정단계에서는 글이나 말로 된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건축가의 자질이 증명이 안 되는 항목이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물관 건축설계는 대개 공공프로젝트이므로 입찰이나 적격심사, 설계경기 등을 통해 설계안

-
4. 서상우, 「박물관의 역사와 개념의 변천」,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10-29쪽
최윤경, 「박물관 건축의 역사적 변천」, 『21C 한국박물관의 비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1997, 25-42쪽
서상우, 「박물관의 기본기능」,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30-37쪽
서상우, 「박물관 건축의 기본체계, 공간 구성, 전시공간 과 전시계획」,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40-72쪽
 5. 차영근, 「국내박물관 보안현황과 시스템」, 『박물관 보안과 방재 시스템』,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5-18쪽
황현수, 「박물관 방재시스템의 사례와 관리대책」, 『박물관 보안과 방재 시스템』,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39-54쪽
 6. 서상우, 「한국 현대 박물관·미술관 건축의 발전과정」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15-44쪽
 7. 이종선, 「21세기 박물관의 바람직한 설립방향」, 『21 한국박물관의 비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1997, 13-23쪽
 8. 황동렬, 「21세기 문화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박물관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연구」, 『21C 한국박물관의 비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1997, 51-72쪽
 9. 논문집은 2003년 12월 현재 통권1호(1998.11.)에서 통권9호(2003.8)까지 발간되었으며 논문·학술자료·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10. 이종선, 「21세기 박물관의 바람직한 설립방향」, 『21 한국박물관의 비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1997, 19쪽

또는 설계자가 선정된다. 게다가 대상대지에 문화재라도 하나 있으면 문화재 예산으로 발주되다보니 문화재보수나 실측·설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설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설계경기 등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심사위원 구성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능이나 건축구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 치중하기 마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은 지역업체에게 더 나은 기회를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건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박물관 건축에 대해서는 박물관대학 등에서 배워서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박물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박물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과 그 기능관련 구체적인 시설이 있다.

첫째, 수집·보존 기능과 수장공간, 둘째는 조사·연구 기능과 사무·연구공간, 셋째로는 전시·보급 기능과 전시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기능과 교육공간이다.

이들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박물관의 관리·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바람직한 박물관의 건축

위와 같은 기본기능을 담는 시설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박물관 건축이다.

박물관 건축에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건립기본계획 등의 연구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어떤 목적의 박물관이 필요한가?

-신축을 할 것인지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유물은 있는지? 유물의 보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자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추후 전문인력확보와 건물 및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전시계획과 함께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박물관 건립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물 그 자체도 유물의 일부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어야 한다.

건립예산만 확보해 놓고 관리운영대책이 없거나 연구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개관을 하자마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얼마안가 용도가 바뀌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3. 종교박물관의 건축

종교박물관의 건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건립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장소에 새로이 건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축이던 활용이던 앞 항에서 언급한 박물관 건축의 기본사항을 일단 갖추고 그 바탕에 제 종교의 목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부여된 제 종교의 특성이 건축조형이나 실내분위기로써 또는 체험 동선으로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적인 박물관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먼저 짓고 유물을 가져다가 방 속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유물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관람했다. 앞으로의 박물관은 유물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보존·관리·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종교 박물관으로 기독교의 경우 초기 기독교 상태의 지하기념관이나 불교의 경우 최초의 설법장소처럼 야외유적지 자체를 옥외전시장으로 하는 건축물이 없는 옥외 박물관(open-air museum)도 생각할 수 있다.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지의 경우는 유적을 넣는 건물을 지으려 하기보다는 유적지 그 자체를 잘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독교 성지들도 그 곳에 무언가 건물을 지으려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보존하여 관람시킴으로써 무형의 공간에서 순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종교박물관 건축의 과제

기독교계 박물관 건축의 경우는 문화유산의 연령이 낮아짐과 동시에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등록제와 아울러 신축의 필요도 있겠지마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박물관화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점점이 지어진 교회건물들인 현대문화유산들도 서서히 박물관화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포스트모던 건축물도 이미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건축공법들이라던가 관련도구들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그 유산들을 어떻게 수리 보존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서서히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

불교계 박물관 건축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작정 건물부터 짓고 본다는 것이다. 대개 문화재 예산으로 집행이 되다보니 회계 연도에 저축을 받고 불필요하게 한국 고(古)건축의 형태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정된 건축사사무소만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능적이지 못하며 관리운영의 대책이 없이 종합계획수립 없이 건물만 짓는 예가 많다.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유사한 박물관을 경쟁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다.

5. 바람직한 종교박물관의 건축

첫째, 제 종교 박물관들이 모두 소장유물의 보관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바 앞으로의 종교박물관은 소장·보관의 개념에서 보존(保存)의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수집·보존 기능과 조사·연구기능 및 전시와 사회교육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기능은 어느 정도 보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보존처리를 포함한 조사·연구기능의 보강이다. 이미 건립된 박물관의 관리·운영에는 특히 조사·연구 분야에 자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나 소규모 박물관마다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연구인력의 절대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제안을 하자면 전 국토를 구역별로 묶어서 지역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하여 연구 및 보존처리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령 기독교계 불교계를 막론하고 영남권과 창원문화재연구소·호남권과 부여문화재 연구소·충부권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국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의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일이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고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과학적 수리보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둘째, 건물을 무조건 신축하려 하지말고 시설을 보강하여 기존 건축물이나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유물들을 어울리지 않는 새 집에 담는 것보다 외모는 오래되었더라도 기능은 첨단인 박물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되도록 유물들이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이 되면 가치가 더하지 않겠는가.

셋째, 신축을 할 경우 설계자 선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불교계 박물관의 경우 대다수가 문화재 수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수립이 되다보니 목구조(木構造) 고건축 수리업체만이 설계자격이 있어 왔다. 앞으로 벽돌조 조적식 건축이 대부분인 근대문화유산 관련 기독교계 건축의 수리나 관련 사업은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물관 건축은 전문가의 기획이 필요하고 종교 박물관의 건축은 거기에 일종의 신앙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애정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설계하기가 나올 것이고 불교적인 생각이 더해져야 불교 성보박물관을 설계하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건축이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배경이 없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종교 박물관이 선교나 포교의 매개체가 되려면 건축물 자체도 조금은 냄새를 풍겨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불교건축 연구의 대가들은 대개가 기독교계의 장로이던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

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삼보(三寶)사찰의 박물관들도 기독교인이 설계한 예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불교계가 대자대비(大慈大悲)하다고 한다.

넷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기 쉬우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운영 대책과 인력보장 및 관리운영예산을 수립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동시에 해야할 일이 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다. 이 정보센터를 통해 각 종교간의 정보교환도 필요하다.

III. 맺는글

이상과 같이 종교박물관의 건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그동안의 박물관건축에 대한 연구의 성과물들을 돌아보았고,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바람직한 종교박물관의 건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종교의 종합적인 박물관의 건립은 이번 기회에는 다루지 않았다.

종교박물관이란 유물의 수장 및 도난방지의 차원에서 한 발 앞서가 종교적 유물을 통한 교육 및 선교(宣敎)·포교(布敎)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박물관의 건축은 종교박물관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 기문당, 1995
-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I, 기문당, 1995
-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II, 기문당, 1995
-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연구, 1995
- 김원 총괄책임, 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연구, 1986
- 최준오, 역사적 교회건축의 박물관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 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9호, 2003. 8. 22-33쪽
-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의 형태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5. 11
- 김용승, 류민경, 국내 박물관 건축의 공간구성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8, 1998. 10, 177-182쪽
- 김용승, 미술관의 전시공간의 변천사, 건축세계 1997. 4, 80-85쪽
- 박석수, 이우권, 「박물관 설립기획을 위한 프로그래밍 체계 연구」,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6호, 2002. 2. 69-75쪽